

人 事 말 씀

尊敬하는 來賓여러분과 敎人同德여러분!

公私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東學革命運動百周年 紀念事業을 爲한 「學術發表會」에 參席해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甲午東學革命運動은 爲國爲民의 뚜렷한 東學的 指導理念 밑에서 有機的인 組織網을 通하여 農民大衆을 안아들여 除暴救民과 輔國安民 斥洋斥倭의 旗幟를 높이들고 民族의 自主와 近代化를 爲해 싸운 革命運動으로서 民族史의 黎明을 告하는 새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東學革命의 意義와 影響은 참으로 至大한 것이며, 우리民族의 進路에 커다란 光明을 비쳐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世界史에 자랑할만한 民族自尊의 龜鑑이었으며 後代에 길이 繼承發展시켜야 할 民族正氣 發揚의 빛나는 金字塔였습니다.

이제 東學革命運動 百周年을 四年餘 앞두고 先烈들의 高貴한 犧牲精神을 오늘에 되살려 東學思想을 再顯하고 우리들의 決意와 姿勢 및 位相을 새롭게 하는 同時에 널리 革命의 거룩한 業績과 崇高한 精神과 理念을 宣揚하고자 하는 뜻에서 記念事業을 學敎的인 뿐만아니라 汎社會的으로 擴散 展開코자 記念事業會를 構成하고 그 事業의 一環으로 오늘의 學術發表會를 갖게 된 것입니다.

平素 東學에 對한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研究를 거듭해오신 碩學 諸賢께서 主題發表와 討論에 參與하시어 東學革命運動의 참뜻과 實相을 正確하고 깊이 있게 整理 發表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甚深한 敬意와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參席하여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歡迎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布德130(檀紀4322)年11月11日

東學革命百週年記念事業會

會長 李 永 福 心告

學術發表會

司會：尹錫山 博士(漢陽大)

I. 發題講演：統一理念과 東學思想

發表：李恒寧 博士(前弘益大總長)

II. 主題發表：東學革命百週年과 歷史學의 課題

發表：李炫熙 博士(誠信女大)

討論：劉準基 教授(總神大)

金正義 教授(漢陽女專)

III. 主題發表：東學革命百週年

記念時務六條啓

發表：趙鏞一 博士(檀國大)

討論：趙興胤 教授(漢陽大)

林雲吉 教化觀長(天道教)

統一理念과 東學思想

李 恒 寧

[1]

남북한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우주관에 있어 남쪽은 관념론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북쪽은 유물론을 취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인생관에 있어 남쪽은 性善說的 和合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쪽은 性惡說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셋째는 세계관에 있어 남쪽은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북쪽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이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물질이나 정신이나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동학사상에서는 우주의 본질을 「至氣」로 보는데 이 지기는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기 이전의 우주의 본체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기 이전의 지기의 세계로 환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 인간의 본질이 본래 화합적이냐 또는 본래 투쟁적이냐는 문제도 오랫동안 논쟁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동학에서는 「侍天主」 즉 人乃天의 논리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회체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좋으냐 또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좋으냐는 것도 오랫동안 숙제이지만 동학에서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두가지 체제를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관에 있어서나 인생관에 있어서나 세계관에 있어서 서양인들은 사물을 분석해 놓고 사물을 독립적, 무관적, 상극적, 대립적으로 보는데 대해서 동양인들은 사물을 분석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결합적으로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물은 서로가 분석적, 상관적, 상생적, 상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동양인들이 농경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협동적 생활양식이 발달한데 대해서 서양인들은 상업생활을 하기때문에 상호독립적인 경쟁적 생활양식이 발달된데서 온것 같다.

우주의 본질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나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나 사회의 본질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나 동양과 서양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풍토성에서 온 것 같다. 또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에서는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적 생활양식이 발달되었다.

자연의 혜택으로 농경을 할 수 있었던 동양인들이 자연에 귀순하는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상대방 인간의 심리적 파악에 능하여야 상업이 잘되는 서양인들이 인간을 탐구하는 인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초를 따라 방황하던 중동인들은 그 생존의 필요상 집단적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동양인들이 자연을 고맙게 여겨서 범신론적 사상이 형성되었고 서양인이 인간심리의 다양상을 보고서 다신론적 사상이 형성되었으며 중동인들이 사회통제의 필요상 일신론적 사상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동양의 범신론적 사상, 서양의 다신론적 사상, 중동의 일신론적 사상이 그 뒤에 여러가지 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서양인들은 일찍부터 우주의 본질을 관념과 물질로 구별하여 놓고 그 어느것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관념과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파악하였는데 이를 「氣」라고 하였다. 氣라는 글자는 「气」와 「米」의 合字인데 「气」는 공기의 유동에서 본따서 천지가 운행하는 정신현상을 의미하고 「米」는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팔방이 가득 찼다는 뜻과 농경민족의 主要食物을 의미하며 물질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氣」라는 것을 우주의 궁극적 존재로 만물생성의 근원인 정신적 물질적 합일체로 생각하였다. 오늘날 漢字문화권에서 쓰는 「氣」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말-예를 들면 氣體·氣骨·氣品 등은 정신적 의미와 물질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儒學사상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太極으로 보고 그 太極은 「理」라는 정신적 존재와 그 존재를 구체화시키는 작용인 陰陽兩氣의 물질적 존재로 생각하고 理氣二元論을 주장한다. 그러나 老莊사상에서는 氣一元論을 주장하여 氣를 정신적인 것도 그 가운데 내포되고 있는 우주의 궁극적 본질로 본다.

한국의 고유사상인 풍류도는 최고운이 난랑비서에서 밝힌 것처럼 儒佛仙(道)사상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풍류도의 원류인 단군사상을 보면 단군의 아버지되는 桓雄이 천상에서 太伯山으로 강하하여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은 나중에 阿斯達(九月山)의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상에는 仙道的 색채가 강하다. 그 선도적 색채는 중국 老莊의 道教사상이전에 한국이 固有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孤雲이 단군이 지었다고 하는 天符經에 담겨있는 사상은 一을 하나인 동시에

무궁하여 無始無終한 것으로 보아(一始無始—……—終無終—) 이른바 「한」사상을 밝히고 천지가 다 인간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여(人中天地—) 인간의 不老不死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神仙사상이다. 이와같은 단군의 신선사상이 신라때 風流道(花郎道)를 이루고 고려때 八關道를 이루고 조선때 선비道를 이루면서 이어 내려왔는데 조선말에 이르러 유교의 경직화와 서양의 유입으로 그것이 흐려지자 孤雲의 28대손인 최수운에 의하여 다시 재현되어 동학사상이 되었다.

동학의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주문은 동학의 우주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至氣今至 願爲大降으로 동학의 우주관인 至氣사상을, 侍天主 造化定으로 동학의 인간관인 人乃天사상을, 永世不忘 萬事知로서 동학의 세계관인 후천개벽에 의한 민족주체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이 氣라고 파악한 것을 한국인은 한(一과 無限을 같이 의미한다)으로 파악했다. 단군신화에서 桓因·桓雄으로 표시된 「桓」은 「환」하다는 광명을 한자음으로 표시한 것인데 광명은 하나인 동시에 천지에 보편적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한」이 되고 그 「한」을 주재하는 「하느님」사상도 생겼다. 하느님은 동학에서 「한울님」이라고 하고 서학에서는 「天主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한국인이 예로부터 신앙되어 온 「한울님」을 최수운은 다시 찾아서 그 본질이 至氣임을 밝혀냈다. 水雲은 논학문에서 至氣는 「지극한 기운으로 虛靈이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 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渾元한 한 덩어리 기운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老莊에서 氣를 중심으로 물질로 나타나면 極이 되고 정신으로 나타나면 神이 된다는 極氣神의 삼단계 사상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至氣가 물질과 정신의 근원이라는데서 관념론과 유물론을 일원화시켰다. 또 至氣는 허령이 창창하여 우주에 충만해 존재하면서도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일에 명령함으로써 범신론적 사상과 일신론적 사상을 모두 포섭하였다.

이 至氣사상은 오늘의 발달된 천문학과 물리학에 있어서의 천체구조와 물질구조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사상과도 일치된다.

지금까지의 天主나 神의 개념은 철두철미하게 觀物的 존재로만 압축되고 물질적 요소가 전연 없는데 비해 至氣로 파악되는 天主는 물질까지도 내포된 정신적 존재가 된다. 단군신화에서 桓因은 다만 天上만 생각하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그의 아들 桓雄을 지상에 내려 보내 홍익인간의 이상사회건설을 염원한 점에서 세속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는데 동학에서는 그 하느님을 至氣로 표현하여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해소시켰다.

동학이 후천개벽으로 정신개벽과 더불어 물질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을 주장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2]

인간관에 있어서 상업생활에 유래한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변증법의 논리를 성립시켰다. 변증법은 어떠한 존재든지 그것 자체가 독립적 존재로서 甲과 甲이 아닌 非甲은 엄연히 구별되는 他者 즉 별개의 존재라고 본다. 이것이 矛盾律인데 모순은 否定을 통하여 발전된다. 이러한 부정적 과정을 통하여 甲이 그 부정으로 非甲이 되고 다시 非甲이 다시 부정되어 非非甲으로 되어 다시 甲으로 종합되는데 이와같은 正反合의 논리가 변증법이다. 이 변증법은 「소크라테스」의 토론의 방식에 의하여 기초지워지고 「헤겔」에 의하여 관념변증법으로 대성되었고 「마르크스」에 의하여 유물변증법으로 전환되어 이 모순부정적 논리는 계급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이와 반대로 농경적 협동생활을 하던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유교의 陰陽사상(陰中有陽 陽中有陰), 불교의 不異사상(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道敎의 氣사상 등으로 사물을 대립적 否定的으로 보지않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아 만물을 동일시하였는데 天符經에 나타난 「한」사상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동양사상의 근원을 되찾은 水雲도 이러한 사상을 侍天主로 표현했다. 侍天主사상은 우주의 근원으로 환원된 것이요 결코 儒佛仙사상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水雲은 자기가 창도한 동학이 유교도 불교도 도교(仙道)도 아니라고 한것은 그가 체험한 동학이 유불선이전의 고유신앙을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이는 孤雲이 고유사상인 풍류도를 말하면서 그것이 유불선을 종합한 것이 아니라 풍류도 안에 이미 근원적으로 유불선사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것과 같다.

水雲은 논학문에서 侍라는 것은 「안으로 神靈함이 있고 밖으로 氣化가 있어서 온세상 사람들이 각각 옮기지 못하는 것을 아는것」이라고 했다. 즉 侍라는 것은 內와 外, 정신과 물질, 우주와 인간, 神과 자신이 합일되는 道程인데 水雲은 처음 天命을 받을때 「몸이 매우 떨리고 추우며 밖으로 신령을 접촉하는 氣運이 있고 안으로 말을 내리는 가르침이 있어서」(身多戰寒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敎)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물었더니 한울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吾心即汝心)이라고 했다. 이 侍天主사상은 한울님과 인간이 곧 同體라는 사상인데 崔海月은 이를 人是天이라고 했고 孫義菴은 이것을 人乃天이라고 했다.

이 侍天主사상은 天人이 합일되어 공존하는 사상인데 이 공존사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인간과 우주가 모두 一體가 되어 화합하고 협동하고 공존한다는 폭넓은 긍정적사상이다. 자기와 자기아닌 사람은 대립적 모순적 존재로서 결코 공존할 수 없어 否定을 통하여서만 발전된다는 서양의 변증법사상은 생존경쟁에 있어서 優勝劣敗의 현상을 합리화시키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強國의 약소국침략을 정당화시켰다. 그뿐만아니라 否定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분열쪽으로 몰아가서 모든 현상을 상호 반대적인 것으로 규정지어 배타적인 행동을 조장했다. 오늘날 북한에서 유물변증법에 의한 투쟁의 강조와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唯一사상을 고집하고 있는데 동학의 侍天主사상에 의한 긍정적 사고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侍天主사상에 의하면 인간성은 본래 天主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 善한 것이며 협동적이고 평화적이다. 그것이 가혹한 생존경쟁에 시달려 人性이 악화되고 상호경쟁과 투쟁이 성행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인간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곧 天主가 된다. 남북한도 이와같이 인간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관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도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용이하게 접근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서양의 상업생활적 개인주의적 정치체제요 사회주의는 본시 중동의 유목생활적 집단주의적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동양은 본시 농경생활적 협동생활적 정치체제를 이어왔는데 그것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 집단을 정점으로 하는 인륜적 관계조직이다. 동양은 오랫동안 그 인륜의 기초를 가족에 두었으나 그와같은 가족적 인륜관으로서의 새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움으로 그 인륜의 단계를 한층 높여 민족적 인륜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족적 인륜관계만 중요시하던 동양은 민족적 자각이 없어서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다.

水雲이 西學을 반대한 것도 그것이 서양의 침략도구가 되었던 까닭이요 그가 일본을 배척한 것은 일본이 한국의 민족성을 유린한 까닭이다. 개인을 위주로 하거나 집단을 위주로 하는 생활양식은 인간의 자유나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극한적인 인위적 생활양식이요 결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은 아니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민족같은 인륜관계속에 용해되고 또 인간은 집단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민족같은 인륜관계속에 매몰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이다.

동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을 존중하여 처음에는 가족주의적 인륜생활을 하다가 근대에 들어와 민족주의적 인륜생활로 발전되었는데 이 가족적 단계에서 민족적 단계에의 비약을 水雲은 이것을 후천개벽으로서의 민족개벽이라고 하였다.

이 민족개벽으로 永世不忘하고 萬事知하는 地上天國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孫文이 三民主義를 제창하면서 民權주의 民生주의의 토대에 민족주의를 둔 것도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흑백 인종분쟁이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西藏민족의 독립요구가 있고 소련에서도 민족분쟁과 민족독립의 요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민족적 생활양식을 억지로 개인적 생활이나 전체적 생활로 획일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사회 가운데 가장 유대가 강한 것은 민족이다. 민족은 혈연과 언어와 문자와 思考와 의식주 생활풍습 등을 같이 하는 역사적 운명공동체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활풍습을 지키고 같은 운명을 따르는 민족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남한쪽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가 非동양적이고 非한국적이다. 민족의 기반이 튼튼한 연후에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평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먼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배경을 이루는 민족주의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민족주의는 옛날의 강대민족들이 가졌던 침략적 폐쇄적 전체적 독재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약소민족으로서 생존적 개방적 민주적 민중적 민족주의라야만 한다. 우리는 결코 개인만으로 살 수 없고 또 계급만으로도 살 수 없다. 먼저 민족으로 살아나기는데 여기에 남북한의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민족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한국이 일제침략으로 암흑기에 있을 때 공산주의로 민족의 독립을 피하던 애국자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은 민족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결코 민족을 해체하고 사회주의연방으로 편입되는 것을 바랬다고 할 수는 없다. 남한쪽도 본래가 非한국적인 개인주의적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고 북한쪽도 본래가 비한국적인 계급주의적 미몽에서 깨어나서 민족본래의 場에서 만나야만 한다.

동학은 후천개벽사상으로 민족적 자각을 토대로 갑오동학혁명, 3·1운동을 주동하였는데 이제 남북한 통합을 위한 또하나의 커다란 민족운동을 주도할 운명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學革命百週年과 歷史學의 課題

李 炫 熙

동학혁명과 민족의 자존

1894년(갑오) 3월 21일, 전라도에서 동학혁명군이 주도한 동학혁명운동은 5년 뒤인 1994년 이날이 되면 그 1세기, 1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순간을 맞게 된다.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아 감격의 1세기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학—천도교 130년 역사의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내외에 그 참 진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 이상으로 과장 미화될 수 없고 반대로 왜곡 평가절하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정당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그동안 안도 그랬듯이 사실화·정당화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잘못 인식된 저간의 이런저런 제설이 재평가 조명되어야 함을 먼저 강조해 둔다.

동학혁명은 동학이 제1세 교조 수운선생에 의하여 인류구원사적 의미에서 창도된 이래(1860) 人乃天정신과 輔國安民的 국가관에 입각한 후천개벽사상을 실현시키면서 고난속에서의 30년을 보내고나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동학혁명은 처음에는 종교사적 의미라는 교단적 분위기 속에서 싹터 갔으나 격동기의 민족사를 한 걸음 전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정치사적 개혁으로 그 정신이 응비했다고 본다.

그 속에 경건하고 소박한 단군왕검이 선양한 홍익인간정신의 理化세계실현사상이 맥락지어져 정치개혁, 즉 현실적인 이상 복지사회 건설 의욕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를 우리는 「동학혁명운동」이라고 명명한다. 동학도가 주동이 되어 일어난 동학혁명군 속에는 물론 농민, 상인, 어민, 일부노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은 동학혁명군이 시종 주도적으로 이 혁명을 이끌어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정신사적 맥락에서 이것을 어떤 사명감으로 이끌어 갔을까. 그것은 동학의 창도정신을 신앙적 차원에서 이끌어 가되 억눌렸던 인간성의 회복과 오도된 국가관·민족관의 시정을 요구하며 가치관 정립 속에서 그 참진리를

찾았고 자유, 정의, 진리를 행동강령으로 표방하였던 것이다. 잘 알려진 동학혁명군의 12개조 폐정개혁안을 분석 검토해 볼 때 그 민족구원의 높은 이상과 열망이 나타나 있음을 직감케 한다.

반봉건성과 주체성의 정립을 강조한 12개조의 폐정개혁은 불량횡포한 일부 정부관료의 작폐를 엄정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중에게 복지와 안정감을 갖게 하려는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인권옹호와 인재등용·차별대우의 철폐로 균등복지사회 건설을 표방하면서도 도인과 정부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체감·민족동질성을 강력하게 표방·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근대화의 시발을 알림과 동시에 한민족이 정부일변도적인 독주체제를 견제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비리·모순을 척결해야 한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재고를 절규한 것은 이 혁명의 백미를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혁명군이 표방한 혁명공약속에는 전근대성의 청산 극복과 민족적인 자존심의 선양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 「100년사」에서는 그 정신을 높이 사고 반영시켜야 한다.

동학혁명의 왜곡 평가

동학이나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동학의 발전이나 퇴보는 곧 근·현대사의 흐름·성격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흐름이 외세의 도전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응전·모색하고 실현시키는데 주력해 왔다면 그것은 동학의 후천개벽 정신이라 해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폐정개혁 12개조가 시사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은 곧 그것이 우리 민족사의 올바른 개혁적 발전목표와도 성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에 관한 평가는 일정한 기준이나 흐름이 없이 자유분방한 견해가 백인백출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용어에서부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갑오농민전쟁, 동학전쟁, 농민혁명, 동학란, 동학운동, 갑오전쟁, 갑오민중반란, 갑오농민혁명등 10여 가지로 그 이름이 기준없이 불려지고 있다. 둘째 용어의 난립 호칭 사례와 함께 그 해석도 가지 각색으로 내려지고 있다. 국내, 일본, 북한, 미국등지의 경우 용어와 해석이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

세째 평가 역시 인물(학자, 전문가)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용어는 「동학혁명운동」으로 통일해서 호칭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동학혁명은 혁명성이나 행동성에는 일치하여 명실(名實)이 상부하나 그 다음 단계로의

혁명이 곧 이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뒤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에 다가 「운동」이라는 시간적 공간의 사실 접근적인 타당성 있는 용어로 규정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국정국사교과서에 필자가 여러번 「혁명」으로 집필 강조한바도 있었으나 「동학운동」으로 수정 개고되어 확정되곤 하였다. 1990년 부터 다시 개편시행되는 국정국사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이 걸러져서 확정 통용되길 강력히 제안, 희망한다. 동학혁명의 해석의 문제를 매우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 해석은 천도교인의 경우와 전공학자간에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동학혁명은 분명 혁명이다. 그 혁명은 동학 교단 자체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민족사의 전환점을 모색한 것이다. 불평등에서 평등화로, 부정, 비리, 불의, 부패에서 정당, 참신, 정의, 복지사회 구현의 열망 달성으로, 정실인사에서 공평 객관성 있는 인사정책의 실현을 촉구한 것이다. 의존성에서 자주자립성의 실현을 강조한 것이며 억압받는 인권을 개선하고자 했다. 남녀평등과 자유정신에 따르는 옹분의 대우가 미치기를 기원하고 목숨을 바쳐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집권적인 의지와 신념이 분명한 동학혁명은 집강소의 설치로 민정개혁기관으로서의 제도적인 개혁을 보장받으려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동학혁명이 초기 발발 단계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이른바 「민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동학란」 「민중의 반란」이라고 해석해도 답변이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평가는 우리나라의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까지의 역사를 자극과 발전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주체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개화·척사사상보다도 동학은 종교와 사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약점과 장점을 진폭있게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게 적응력을 발휘해온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북한은 동학혁명을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는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나 계급투쟁이니 하는 식으로 동학혁명의 개혁성·전진성·참여성을 왜곡 평가하고 있다. 과장이나 미화로 인해 잘못을 범하고 있듯이 과소 은폐조작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학혁명운동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왜곡하고 있음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학혁명 100년사 편찬의 의미

동학혁명은 동양에서 의화단혁명, 서구에서 프랑스대혁명과 비견되는 대혁명 운동인 것이다.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행사가 국내외에서 다채롭고 성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였다. 의화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맞는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의 하나가 1994년을 계기로 출간될 동학혁명 100주년사의 편찬계획이다.

따라서 그 체제나 규모도 100년사에 부합되게 결코 작은 편찬에 머물 수 없겠다. 「동학혁명 100년사」라는 책자는 그것이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00년사는 곧 우리의 근·현대사의 운명과 같이 했으니 만큼 그에 견주는 역사가 우리 민족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프랑스대혁명사가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역사에서 가장 영광되고 자긍심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의화단혁명이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동학혁명 역시 우리민족의 영광과 시련의 역사가 내부 깊숙하게까지 비추어지고 평가되며 영원히 교훈의 자료로 남게 될 것이다. 동학혁명 100년사는 곧 동학-천도교 130년의 역사가 무게 있게 실리면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의 형상으로 조명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동학-천도교의 역사가 근·현대사와 나란히 형극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역사적 발자취는 곧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상보성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동학·천도교의 단편적이거나 종합적인 역사가 개인이나 공저로 출간되었으나 「동학혁명 100년사」라는 종합적인 대혁명의 편찬은 처음 시도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100년사」의 편찬은 1894년의 동학혁명을 최절정기로 삼아 심층적이고 진지하게 서술 평가해서 간행되어야 한다. 분량 역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학혁명 100년사는 그 앞뒤로 100년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 다시 평가·해석하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학이 창도되던 1860년대 한국사의 실상과 외국과의 관계, 정부의 인식 그리고 수운의 인류구원사적 강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로부터 그 출발을 잡아서 근대사의 시원이 곧 동학의 창조임을 알리게 될 것이다. 이후 해월 의암 춘암 등에 이르는 동학-천도교의 지도자가 도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헤치며 걸어온 자취를 사적(史的) 평가와 함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근대사의 발전과정에서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동학이 미친 영향이나 그 반대의 경우도 함께 성찰하면서 이 100년사가 집필진에 의해 일관된 사관에 의거 한가지 흐름으로 힘차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진의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뜻을 한데 모은 전문가가 사관을 정립한 바탕위에서 시종 일관성, 참신성, 사실성을 유지하고 집필·출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집필진은 「필드·워크」를 비롯하여 면담 자료수집 교인으로 부터의 각종 자문방향 토론 등 크고 작은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분석·정리해서 종합해야 할 것이다.

동학혁명사는 동학발생 이후 갑진개화혁신운동, 3·1혁명(제2의 3·1혁명 포함), 무인독립운동, 청년운동, 吾心黨운동, 신문화운동,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신교육운동 등에 이르는 광복투쟁과 병행하는 다채로운 항일투쟁까지를 포괄해서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투쟁은 그 기본정신이 동학혁명 정신으로부터 연유하고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 근·현대사에서 혁명이 두번 크게 일어났다고 믿고 그렇게 역사에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1894년의 동학혁명이며 둘째는 1919년의 3·1운동인데 이를 3·1민주혁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자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광복 이후에는 3·1재현운동 영우회운동으로 연결되어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동학혁명 100년사의 주류는 우리 민족의 自尊性을 재확인 선양하는 큰 계기와 순간을 맞는 것이며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종교와 사상상의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고 연결해석해 보아도 좋지 않을가 싶은 생각이다.

우리는 「동학혁명 100년사」를 종합정리하면서 동학—천도교 130년의 역사까지도 재정립 평가하게 된다.

역사는 항상 객관성과 사실성·비판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품위가 있고 역사서로서의 가치기준이 서고 생명력이 있게 된다. 혹시라도 동학—천도교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때 장점, 긍정성에 치우친 해석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미화사 내지는 홍보사의 범위를 탈피하지 못해 자칫 힘든 노고가 도로로 변모되는 안타까움에 빠진다. 이야말로 민망·면구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다.

동학혁명에 관한 앞으로의 허다한 학술연구의 과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예리하고도 정확히 척결, 명쾌하게 서술함에서 찾을 수 있겠다.

동학—천도교의 장점과 함께 취약점이 교인이 아닌 전문학자의 객관성에 의거, 제시지적될 때 그것은 오욕의 순간이라기 보다는 내일을 향한 발전이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담보·안일 속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 100년사」 편찬의 시도는 곧 우리 민족사의 재 발굴과 함께 민족의 용기, 지혜, 극복의지, 참신성 등을 전 세계인 앞에 제시하는 크나큰 민족사의 주체적 대 과업이라고 믿는다.

東學革命百週年 記念時務六條啓

趙 鏞 一

머 리 말

다가오는 1994(갑술년)은 東徒大將 全瑋準(교부접주)이 「보국안민·광제 창생」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당시의 부패한 봉건제도에 항쟁키 위해 白山에서 집결 起包¹⁾(갑오년 3월21일)했던 동학혁명의 100주년에 해당한다.

이 때를 당하여 필자는 평소에 늘 생각해 오던 바를 한 데 엮어, 이를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섯가지 시급한 일로서, 천도교 중앙총부와 국가 정부의 제요로에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제 이것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분계하면 다음과 같다.

I. 무궁화를 천도교의 敎花로 삼아야 한다.

나라마다 국화가 있듯이, 종교마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교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천도교에는 아직 교화로 삼은 꽃이 없다. 그러면 저 불교의 교화가 연꽃이듯이, 동학 즉 천도교의 교화로서 가장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궁화>다. 필자가 「무궁화를 천도교의 교화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타당한 이유에서다.

1) : 그 달(3월)27일에는 다시금 격문을 초하여 이를 사방으로 돌렸는데, 그 격문의 내용인즉 『우리가 義를 들어 여기에 이르게 됨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하는!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코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들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方伯 守丞들 밑에서 굴욕을 당하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믿지 못하리라! 갑오 3월 27일, 湖南倡義大獎所 在白山』 <동학혁명 전봉준, 동학출판사 P.146참조>이라고 하여, 안으로는 탐학하는 관리들의 목을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일본을 말함)의 무리를 구축하기 위해 起義한다고 혁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 1) 무궁화는 우리 나라 국화인데, 이를 천도교의 교화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은 천도교가 「보국안민」을 표방하는 〈東學〉, 즉 「東國思想」(韓國思想 즉 우리 겨레의 주체의식)이기 때문이다.
- 2) 무궁화는 槿域 삼천리의 산하 어디에서나 흔히 피는 꽃인데, 이것은 「山河大運 盡歸此道」²⁾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 3) 무궁화는 그 꽃잎이 흰 바탕 안에 빨강게 물들어 있는데, 이것은 백의민족이 현세의 삶에 불탐이라고 하거니와, 이 또한 천도교는 내세 피안의 딴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요, 거기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아니며, 「사람은 한울님 造化의 心氣를 모시고 있는」〈侍存 : Homo Seejon〉인 만큼 실로 우주개척적이요 極高明의 聖的 〈侍存民主產業社會〉의 건설이라는 동학사상의 현실주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 4) 무궁화는 그 꽃잎이 다섯인데, 이는 水雲의 東學 覺道日인 4월5일의 「5」와, 「五萬年之運數」³⁾의 「5」 내지는 「五款」⁴⁾의 그 「5」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무궁화는 반드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떨어지는데, 이것은 한울님의 造化인 天道, 즉 「無爲而化」의 天理로서의 「盛衰之理」⁵⁾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 6) 무궁화는 「무궁한 天地造化」, 「무궁한 그 理致」, 「무궁한 이 울」, 「무극대도」, 「무극지운」 등을 상징하는 꽃이므로, 천도교의 敎花로 정함이 마땅하다.

弓乙爲天道敎旗,
槿花是天道敎花.

弓乙은 天道敎旗요,
무궁화는 天道敎花로다.

2) : 東經大全 附錄, 8. 歎道儒心急.

3) : 「無極大道 다테내니 五萬年之運數로다」 〈용담유사 1. 용담가〉.

4) : 「五款」은 곧 呪文·清水·侍日·誠米·祈禱의 다섯가지 정성을 뜻한다. 일상생활속에서 한울님을 바르게 모시는 신앙의 修行조목으로서, 천도교인은 누구나 이 오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 論學文

II. 東學의 思想史的 新舊 體用에 관해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東學開祖 崔水雲(濟愚, A.D. 1824~1864)에 의하면 「내 또한 東에서 태어나 東에서 받았으니 道는 비록(西學과 同一한) 天道이나 學(思想)은 곧 東學(東國思想 내지 東洋思想)이다.」(吾亦生於東 受於東 道雖天道 學即東學)⁶⁾라고 하여, 西學(天主教)에 대치하여 창도한 「東學」이란 곧 재래의 東國(한국)사상 내지 동양 사상을 계승한 것임을 밝혀 주고 있다. 이처럼 水雲이 창도한 東學이 「東에서 받아 東에서 편」(受於斯布於斯)⁷⁾ 한국사상 내지는 동양사상을 뜻하는 것인 만큼, 나는 水雲이 이를 받아서 펴기 이전의 종래의 한국사상 즉 단군신화 속에 잠재해 있는 멧진 인간관을 비롯하여 신나는 歌舞降神의 巫俗的 「풀이」(puri)와 花郎道 등을 통하여 일관된 바 “靈肉이 일치되는 天人合一思想”과 儒佛仙의 三敎 사상을 東學의 사상적 妙用⁸⁾으로서의 「옛 東學」이라하고, 또 水雲이 이를 다시금 근대적인 새로운 입장에서 「吾道는 無爲而化矣라. 守其心 正其氣하여 率其性 受其敎하면 化出於自然之中也라」⁹⁾고 그 사상적 本體¹⁰⁾로서의 「造化思想」을 자각하여 편 현재의 천도교 사상을 「새 東學」이라 하여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비단 東學이 西學에 대치된 명칭으로서 오늘날 기독교의 전 교회사를 구교와 신교로 분리함에 대비하여 보는 데서 부합되는 사상적 계보의 동일성에서 뿐만 아니라, 이는 실로 장차 全東學의 思想史的 完벽을 의도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소치에서다.

天主造化吾道體.

儒佛仙西厥之用.

한울님의 造化는 우리 道의 본체요.

儒佛仙의 三敎와 西學은 그것의 妙用이로세.

6) : 論學文

7) : Ibid.

8) 「吾道는 儒佛仙合一이니라. 원래 天道(곧 天主造化)는 儒佛仙이 아니로되, 儒佛仙은 天道의 부분적 진리로 과거시대의 도덕이니라. 儒의 三綱五倫과 佛의 修性覺心과 仙의 養氣養生은 吾道의 부분인데, 吾道는 儒佛仙의 最源頭에 立하여 體는 곧 天道이며 用은 곧 儒佛仙이니 후세에 此를 誤치 아니하도록 愼하라」(天道敎書 제1편, 수운대신사 P. 6)

9) : 論學文

10) : 주8)과 같음

覺道以前舊東學.

侍定知後新東學.

水雲이 天道(造化)를 깨닫기 이전의 전통적 동양사상 내지 한국의 고유사상은 <옛 東學>이요, 한울님 造化를 자각 실현하는 道法으로서의 侍定知三字를 唱道한 이후는 <새 東學>이라고.

Ⅲ. 西紀에 대치하여 布德年號를 東紀로 사용해야 한다.

水雲이 서학에 대치하여 東學을 창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출생을 기한 「西紀」에 대치하여 水雲의 東學 각도를 기하여 「東紀」¹¹⁾로 제창함이 또한 사리에 부합되는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그것은 장차 東學이 명실 공히 동방의 學으로서 널리 연구 傳教되어 그야말로 水雲의 이른바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實을 거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아 결코 부질없는 일이 아닐 뿐더러, 「우리 道는 東에서 받아 東에서 뿜으니 어찌 가히 西로써 이름한다고 이르겠는가?」(吾道 受於斯 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¹²⁾라고 한 水雲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일이 되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大宗教에 있어서도 단군의 출생보다도 그의 古朝鮮 建國日인 10월3일(開天節)을 기하여 「檀紀」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神仙 道教에서는 「道紀」를, 불교에서는 「佛紀」를 각각 사용하고 있거니와, 이제 우리 東學 즉 天道教에서는 금년(1989)을 우선 임시적으로 가칭하여 「布德 130年」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마땅히 정식적으로 「東紀 130年」이라고 불러 기록함으로써 반드시 이 「東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水雲이 「보국안민·광제창생」이라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20년의 求道行脚 끝에 그 道를 깨닫게 된 날인 「天日」(4월5일)에 대한 기념은 천도교인만의 것이 아닌, 실로 거족적인 기념 일이어야만 되는 그 깊은 뜻이 있음을 본다.

觀叟生年西紀始,

水雲覺歲東紀元.

예수가 태어난 해는 西紀의 비롯함이요,

水雲이 道를 깨달은 해는 東紀의 元年이로다.

11) : 서양에서는 아기 예수의 출생을 중요시하여 이를 기한 「西紀」를 쓰고 있으나, 우리 東學에서는 水雲의 출생보다도 그의 東學의 각도를 더욱 중시하므로, 이를 기한 「東紀」를 주장함이 좋을 것이다.

12) 論學文

IV. “道下”라 하는 동시, 「侍存下」라고 존칭함이 가하다.

지금 우리 천도교에서는, 천도교를 믿는 同德 상호간에 서신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성명 밑에 「道下」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단 천도교인만이 道人이 아닌 바에야 비록 “某某 道下”(아무개 道人下)라고 한들 어찌 그것이 믿지 않는 일반인 끼리의 「아무개 貴下」라고 함과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왜냐하면 유불선이 다 道요, 증산교나 원불교도 다 道인 것이니, 따라서 이러한 유도·불도·선도… 등등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道下」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굳이 천도교를 믿는 천도교인끼리만의 특성을 표시하려면 지금 상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개 道下」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某某 侍存下」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천만번 옳다고 함이 필자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持說이다. 그것은 不可不容의 몇가지 이유에서이지만, 이제 그 까닭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천도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항시 서로 만나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편안하십니까?», 또는 「모시고 편안히 계십니까?」라고 한다. 그런데, 서신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란 「아무개 侍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개 侍存」이란 곧 「某某는 모시고 편안히 계십니까?」라는 뜻이요, 「侍存下」의 그 「下」란 곧 발신자인 자기를 낮추는 동시에 수신자인 상대방을 높이는 뜻으로 附記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侍存」이라는 漢字語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쓰면 「모시고 있음」내지는 「모셔 있음」이다. 이것은 東學 특유의 인간관이지만, 水雲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侍天主」¹³⁾ 즉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侍存)이라고 한다. 따라서 人生이란 곧 「한울님을 모시는 일」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水雲에 의하면 「한울님(天主)이란 바로 「天地造化의 지극한 기운(至氣)」¹⁴⁾이요, 또 이러한 「지극한 造化氣運」(至氣)으로서의 「한울님을 모심이란, 안으로 神靈한 마음이 있고 밖으로 그것의 氣화가 있음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절대로 옮기지 못할 것(造化性 자체로서의 至氣)으로 저마다 깨달아 아는 것이라」(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¹⁵⁾고 하거니와, 〈侍存〉이란 이처럼 東學의 사상적인 그 極意로서의

13) 論學文

14) 至者 極焉之爲至 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問而難見 是亦·元之一氣也. 〈Ibid〉

15) 논학문

「사람은 곧 한울님 造化의 心氣를 모시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명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¹⁶⁾, 이 “侍存” 즉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이라」는 자각 위에 서지 않고서는 손의암의 「人乃天」說은 물론이요, 해월의 이른바 「事人如天」이나 「養天主」說 및 “向我設位”의 新祭法과 같은 諸法說은 그 성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至爲天主之字”로서의 소위 「呪文」과, 모시는 기본자세로서의 “誠敬信”의 「三字」 및 靈肉이 일치하고, 知行과 天人이 합일되는 바 贊化育의 창조적 참여(후천개벽)와, 이에 관한 諱(知其道 而受其知)이 불가능하겠기 때문이다.

三世相傳貫之道,
侍天養之人乃天.

水雲·海月·義菴의 三世가 서로 전하여 꿰뚫은 道는,
한울님을 내 몸에 모시고 이를 기르면 사람이 곧 한울이라네.

V. 天日(4월5일)을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

東紀 元年(서기 1860, 庚申) 4월5일은 慶州人 최수운이 「보국안민·광제창생」을 위한 20년의 求道行脚 끝에 마침내 “無爲而化”의 「天道」(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東學) 즉 「天道教」를 창도한 실로 우리 겨레의 뜻 깊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러므로, 이 「天日」에 대한 기념은 한갓 천도교인만의 경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족적인 경축행사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天日」을 저 「개천절」(10월3일),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등과 같이 국경일의 하나인 「天日節」(4월5일)로 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우리 천도교가 실로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다분히 그 주도적 또는 선구적인 몫을 담당해 왔다는 史實¹⁷⁾에서 뿐만 아니라, 오직 『한울님을 모심』(侍天主)으로써만 그의 무궁한 化育의 功을 도와 이를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 형태에 있어서 실현하는 바 새 역사 형성(人道)으로서의 창조적 참여(造化定)

16) 조용일, 東學造化思想研究(1988. 8; 東星社)의 「第5章 第3節 pp. 108~119」 참조.

17) 1894년의 갑오동학혁명을 위시하여, 光武8년(1904)에 동학신도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던 甲辰開化운동 내지 기미년(1919)의 3·1운동에 있어서 東學(천도교)이 선구적·주도적 몫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야말로 인류 문화의 진수와 그 향방을 영구히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위에 말한 「天日」은 한갓 우리 겨레의 거국적 경축일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인류적인 경축일로서 저 “부처님 오신날”(음 4월8일)과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전인류의 공휴일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그저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Ⅵ. 水雲大學 設立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이미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포덕천하·보국안민·광제창생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운대학 설립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성균관대학이 유학 내지 유교의 대학으로서, 동국대학은 불교의 대학으로서, 숭실대학과 연세대학은 기독교의 대학으로서 각각 설립되었고, 또 원광대학은 우리 나라의 원불교 대학으로서 이미 세워진지 오래다.

그런데, 왜 우리 동학 즉 천도교를 위한 대학만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과연 나뉘어 있는가? 깊이 반성할 문제다.

교육법 제108조에는 대학의 목적을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의 도야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세우는 목적인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과 인격이 반드시 천도교적 가치존중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수운대학 설립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민심 귀일책으로서의 국민도의 확립과 민생 안정책으로서의 국민경제의 건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분단된 국토를 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일들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천도교에 의하면 우리의 진정한 근대화는 天人과 物心이 합일하는 그 要道妙法으로서의 「한울님을 모심」으로써만 국민도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될 수 없고 오직 「의식내적 구상의 성실화」와 「신체적인 노작행위의 기술화」가 아울러 요구되는 것이요, 또한 이 둘은 다 같이 「시천주」에 입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도의제건을 「시천주」의 주체적 성실성에 입각하고서야 가능하고, 우리의 경제건설이나 이에 수반되는 자주국방은 「시천주」의 객관적인 진실성을 도외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컨대 “모심”이란 곧 「습其德」¹⁸⁾의 원리인 것이니, 이를 자각한 <모심>의 주체성을 떠나 무궁한 그의 造化를 우리의 현실적 형태에 있어서 정립하는 이른바 「습其德 定其心」¹⁹⁾의 창조적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지금까지 필자는 東學革命百週年을 4년 앞두고 거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실 갑오동학혁명백주년을 맞는 그 기념사업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집회인 만큼 이에 필자는 <記念時務六條啓>로서

1. 무궁화를 천도교의 敎花로 삼아야 한다.
2. 동학의 思想史的 新舊·體用에 관해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西紀에 대치하여 布德年號를 東紀로 사용해야 한다.
4. “道下”라고 하는 동시에 「侍存下」라고 존칭함이 좋다.
5. 「天日」(4월5일)을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
6. 水雲大學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고 항목별로 비교적 자세히 啓陳하였다. 그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記念時務들인 만큼 늦어도 記念 當年인 오는 1994(甲戌)년까지는 빠짐 없이 죄다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8)논학문

19)논학문

A series of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rranged vertically down the pag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most of the page width. There is a dark smudge or ink mark near the top right of the page, overlapping the first few lines.

